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5.07.13 / 제6호

MATCH PREVIEW

충남아산 상대로 분위기 반전 나선다
인천, 안방에서도 안산 푼을 준비 완료

BLUEMAN INTERVIEW

‘조연에서 새로운 주연으로!’ 박승호,
“윤정환 감독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다”

UTD REPORT

도대체 얼마나 잘했는데?
기록으로 보는 2025시즌 상반기

ROOKIE INTERVIEW

‘새로운 인천의 아들’ 강민성,
항상 내게 최우선인 팀, 인천



제6호 THE UNITED / 발행일 2025년 07월 13일 / 등록번호 영등표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주)더스포츠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유희팩커드빌딩 19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희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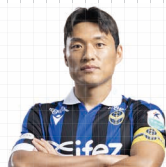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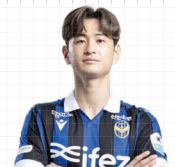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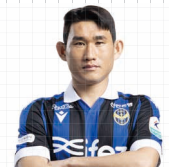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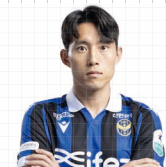
5 **이명주**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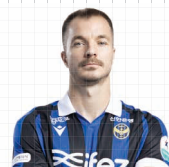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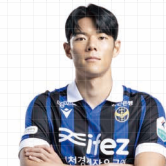
8 **신진호**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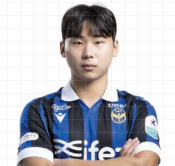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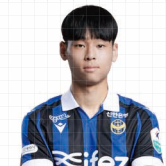
15 **임형진**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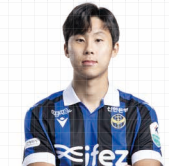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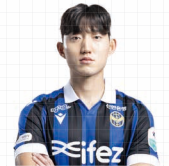
20 **멜브리지**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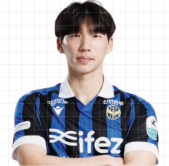
25 **이범수**
GOAL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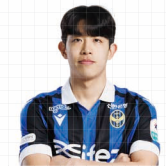
27 **김보섭**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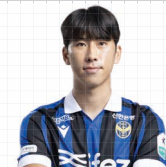
28 **김건웅**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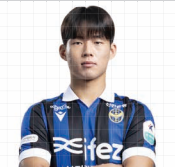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9 **김명순**
DEFENDER



77 **박승호**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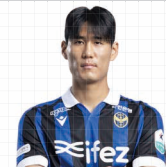
88 **정원진**
MIDFIELDER



94 **쇼타**
FORWARD



97 **김동현**
GOAL KEEPER



99 **박호민**
FORWARD



1 **민성준**
GOAL KEEPER



3 **이상기**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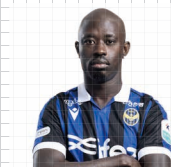
4 **김건희**
DEFENDER



11 **제르소**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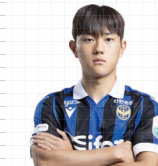
13 **최승구**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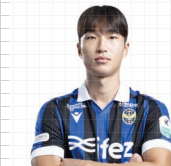
14 **바로우**
FORWARD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힘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코파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2	인천 : 충북청주	1	인천축구전용
코파	04월 16일 (수) 19:00	2	인천 : 평창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3	인천 : 천안	0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1	부천 : 인천	3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3	인천 : 김포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0	충남아산 : 인천	3	아산이순신
코파	05월 14일 (수) 19:00	3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12R	05월 18일 (일) 16:30	0	안산 : 인천	2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2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3	천안 : 인천	3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1	인천 : 부천	0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1	수원 : 인천	2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2	인천 : 화성	0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1	김포 : 인천	1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2	전남 : 인천	1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인천 : 안산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부산 : 인천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19:00		인천 : 성남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충북청주 : 인천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부천 : 인천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코파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CHUNGNAM ASAN PREVIEW

리그 반환점 맞은 인천, 충남아산 상대로 분위기 반전 나선다

글 = 한휘연 UTD기자(by_xayah@naver.com)

무더운 한여름 날씨, 원정 2연전의 아쉬움을 뒤로한 인천유나이티드가 리그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초 홈으로 돌아와 분위기 반전에 도전한다.

인천은 오는 7월 13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충남아산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2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39라운드까지 예정된 리그, 인천은 절반인 19경기에서 14승 3무 2패(승점 45)로 리그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시즌 초 성남FC와의 3라운드 원정 패배 이후로 1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했던 인천이지만, 지난 7월 5일 19라운드 전남을 상대로 일격을 맞았다. 본격적인 더위로 선수단의 체력과 집중력 문제가 대두되는 타이밍, '다이렉트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이 경기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인천은 여전히 점유율(56.25%)과 경기 당 득점(1.89)부분에서 각각 리그 1, 2위를 달리며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경기당 절대적인 슈팅 개수(평균 11.32개)는 리그 6위에 올라 있다. 수비진의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패스를 전개, 속도가 빠른 양측 윙인 바로우, 제르소로 공격 기회를 노리는 인천이다. 휴식이 없이 매주 경기를 소화하는 만큼 덥고 습한 날씨, 지치기 쉬운 환경에서도 핵심 자원들의 움직임이 유지돼야 더 적극적인 슈팅과 득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동률부터 문지환까지 인천의 부상자 명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윤정환 감독은 영입과 교체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민경현의 김천

상무 입대로 생긴 중원 공백은 정원진과 김건웅을 영입하며 메꿨다. 거기에 '베테랑' 신진호와 감성민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교체 투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현재 리그 19경기 6승 7무 6패(승점 25)로 7위, 중위권에 자리잡은 충남아산은 6위 서울이랜드FC와도 승점 차가 4로 벌어져 있다.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참여를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 절박하게 몰아칠 충남아산에 대비해야 한다.

배성재 감독이 이끄는 충남아산은 주로 4-5-1 포메이션으로 나오고, 원톱 자리에서 리그 7골 1도움으로 쟁쟁한 외인 공격수들 사이에 이름을 올리며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종민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 중원에서 김종민으로 이어지는 득점 루트에 대해 인천 수비진의 날선 경계가 필요하다.

인천은 아직 올 시즌 홈에서 열린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았다. 거기에 충남아산과의 직전 맞대결인 11라운드 원정서 인천은 제르소와 바로우가 휘몰아치며 3-0으로 승리, 구단 역대 최다인 6연승을 기록했다.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패배의 여파를 빠르게 떨쳐내고 승점을 쌓아올려야 한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때, 인천은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홈 팬들에게 승점 3점을 선물하기 위해 나선다.



vs ANSAN PREVIEW

안산의 두터운 수비 뚫어냈던 인천, 안방에서도 뚫을 준비 완료

글 = 지문호 UTD기자(jimh2001102@naver.com)

홈에서의 첫 안산전이자, 안산과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리는 인천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7월 27일 일요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2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5월 18일에 치러진 리그 12라운드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전반 30분 무고사의 세트피스 혼전 속 선제골과 후반 8분 박승호의 리그 2호골이 빛났다. 이 경기에서 안산은 두터운 두 줄 수비로 인천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당시 최하위권에 머무르다 서서히 조직력에 안정감을 찾아가던 시기의 안산이었기에, 인천은 안산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어내야 했다. 결국 인천은 이날 다른 경기보다 적은 숫자인 총 8회의 슈팅과 3회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세 차례의 유효슈팅 중 두 번 골망을 가르며 당시 두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던 안산의 발목을 잡아내는데 성공한 인천이었다.

인천은 이제까지의 경기들 중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16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했고, 이후 경기에서도 승점을 쓸어담던 중 광양에서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했다. 본격적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이 시작되며, 선수단의 집중력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전방 압박을 가져가며 상대가 좀처럼 박스 밖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도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총 9차례의 코너킥을 얻었던 인천이지만, 한 차례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트

피스 득점이 저조한 인천이다. 고무적인 점은 현재 인천은 이 경기 기준으로 모든 리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중이라는 것이다. 공격 전술과 개인 능력이 꾸준히 날카롭다.

인천은 최근 들어 부상자가 계속해서 발생중이다. 문지환이 김포 원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이주용은 전남 원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동률의 복귀 예상 시점도 늦춰졌다. 핵심 자원들이 이탈해나가는 중, 인천은 김건웅과 정원진 영입에 성공하며 중원을 보강했다. 왼쪽 풀백 자리에는 이상기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4백 라인의 균형을 유지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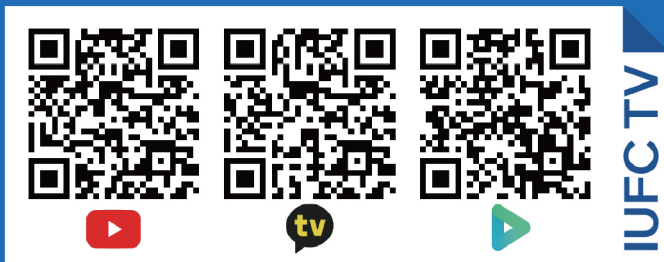
이관우 감독의 안산은 시즌 중반부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갖춰가고 있다. 안산은 현재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짜임새 있는 수비 조직력이 완성되었다. 지난 인천의 안산 원정 이후 19라운드까지 단 2실점만을 허용한 상태이다. 다만 안산은 단단한 수비 조직에 비해 득점력이 저조한 편이다. 동일 시점 기준 12득점으로 리그 최소 득점이고, 이 영향으로 최근 4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안산 원정에서도 안산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고 두 골을 몰아쳤던 인천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승리하며 한여름 밤에 시원한 승리를 선사하고자 한다.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조연에서 새로운 주연으로!' 박승호
**윤정환 감독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활동량 많은 선수를 ‘현신’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묵묵히 뛰며 팀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는 역할. 하지만 그런 선수들에게는 ‘조연’이라는 인상이 따라붙고는 한다. 경기 내내 그라운드를 누볐어도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레 다른 이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박승호는 다르다. 박승호는 활동량은 기본, 결정적인 장면에서 등장해 승부를 결정짓는 임팩트까지 갖췄다. UTD기자단은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승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팬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수원삼성전

Q. 최근 컨디션은 어떤가?

컨디션은 지난 시즌보다 좋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몸이 조금 피지는 느낌이 들었다. 올해는 몸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체력적으로도 문제없다. 아픈 곳도 없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다.

Q. 인천이 2위와 큰 격차를 벌리며 1위를 달리고 있다. 팀 분위기는 어떠한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팀 분위기가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다. 지거나 비기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꾸준히 이기고 있어서 흐름이 좋다. 이렇게 팀 분위기가 좋은 것이 연승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Q. 프로에서 첫 멀티골을 기록했던 16라운드 수원삼성전 이야기 할 수 없다. 수원전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

경기 전 워밍업 때도 괜찮았고,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다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 입장 전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신에게 생겼다.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팬분들의 카드섹션을 보고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다시 전환되었다. 수원전 특점과 승리는 팬분들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결과였다.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있다.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Q. 인천에 함께 입단한 동기들이 지난겨울과 올여름에 많이 떠났다. 외롭지는 않은가?

다들 워낙 친해서 팀을 떠날 때, 일부러 더 장난치고, 더 많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지난 시즌 시작할 때, (박)현빈이가 옆에 없다 보니 많이 외로웠다. 현빈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었다. 그 시간이 있었던 덕분에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올해 (강)민성 이도 합류했고, (박)경섭이도 있다. (민)경현이 형과도 친하다. 경현이 형이 군대에 가서 그 빈자리도 느껴지지만, 다른 선수들과도 친해서 큰 걱정은 없다.

Q. 이번 시즌 절친한 친구인 박현빈과 두 차례 상대 팀으로 만났다.

현빈이는 사적으로도 많이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다. 현빈이가 인천 팬분들에게 자기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시즌 첫 부천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현빈이가

경기 끝나나 자신의 플레이에 속상해했다. 실망하고 있던 현빈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었다.



감독, 코치님 믿고 내 플레이에 집중하겠다

Q. 선수로서 느끼는 윤정환 감독의 축구는 어떤가?

경기할 때마다 신기하다. ‘이러한 플레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전술을 가지고 계신다. 축구를 하면서 매년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정환 감독님의 축구 시스템은 나를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잘하고 싶어서 윤정환 감독님께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윤정환 감독은 박승호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주문하는가?

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많이 돌려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상대 압박에도 공을 더 오래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공을 잡았을 때, 드리블을 하거나 해서 더 유연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감독님 조연대로 내가 플레이로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이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Q. 미드필더 혹은 다른 선수의 플레이에 따라 밀으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러한 전술적인 움직임은 본능인가 혹은 훈련의 결과인가?

철저한 훈련의 결과다. 동계 훈련이나 시즌 초반에는 내 주변 공간에서 움직이는 데만 집중했었다. 감독님, 코치님들께서 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 후로 더 활발하게 뛰려고 하다 보니 좋은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감독님, 코치님들께서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물이다.

Q. 전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뛰어야 하는 역할이다.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많이 생각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항상 무엇이든 잘 안됐다. ‘내가 톨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잘 안 풀렸다. 올해는 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내가 할 일 잘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한다.

Q. 최근에 활약이 좋다. 상대 팀의 견제도 증가했을 것 같다. 경기장에서도 상대의 견제가 느껴지는가?

견제가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상대 견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감독님이나 코치님들께서 견제에 대처할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신다. 시즌 초반에 제르소 선수가 견제를 많이 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팀에서 해결 방안을 많이 알려준 덕분에 제르소 선수의 활약이 더 좋아졌다. 견제가 온다면, 감독님과 코치님들께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에 집중하겠다.

Q. 인천의 주전 공격진 4명 중 유일하게 국내 선수다. 외국인 공격수들과 경기장, 훈련장에서 어떤 식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는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외국인 형들이 나를 배려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말을 해 준다. 형들이 플레이에 관한 조연이나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고맙다. 무고사 선수와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로 무엇을 잘하고,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다.

바로우 선수는 왼쪽에 같이 있다 보니 나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도 한다. 바로우 선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로 그렇게 맞춰 나가서 왼쪽에서 바로우 선수와의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Q. 활동량이 아주 많다. 힘들지는 않은가?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힘들지만, 내 일이라 생각한다. 많이 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플레이이고,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이기도 하다. 그래서 딱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 내가 한 발 더 뛰어서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본 일은 없다. 팀을 위해 희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작년에는 체력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 그래서 강박 아닌 강박감이 생겼었다. 올해는 나 자신을 조금 더 풀어주었다. 나에게 자유 시간을 주면서 회복하고 있다. 작년에는 탄산음료도 안 마셨는데 올해는 가끔 가볍게 마신다. 스스로 제한했던 것들을 조금 프리하게 해주었더니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 회복이 잘 된다고 느낀다.

Q. 지켜야 할 루틴을 많이 가졌던 것인가?

그렇다. 해야 할 루틴이 너무 심했었다. 경기 날에 잠을 안 자는 루틴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자면서 회복을 해야 했다. 올해는 다르다. 경현이 형, 경섭이와 같이 있으면 많이 잔다. 회복에 가장 좋은 것은 수면임을 깨달아서 많이 자고, 또 많이 먹고 있다. 팀 승리도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 이기면 피로가 덜 쌓이는 것 같다.

지난 시즌에는 강박감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크게 받다 보니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몰랐다.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작년에 회복을 잘 못 했다는 것을 알았다.



팬들이 없다면, 나도, 팀도 없다

Q. 최근에 U-23 대표팀에 발탁되었다. 대표팀에서의 각오는 어떤가?

국가대표팀 엠블럼을 가슴에 달고 축구 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다. 간절하게 원했던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다. 2023 U-20 월드컵 때 그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바로 부상이라는 비극이 찾아왔었다. 발탁으로 끝이 아니라 대표팀 가서 잘하고 싶다. 인천에서 뛸 때는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대표팀 훈련을 가면 대표팀에 집중하겠다.

Q.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주변 친구들이 다 블로그를 해서 나도 영향을 받았다. 재작년에 현빈이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계기였다. U-20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가볍게 쓰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 팬분들이 내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기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다. 부담 아닌 부담이 살짝 있다.

Q. 블로그의 스타일은?

내가 남기고 싶은 기록만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팬분들이 원하는 큰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딱히 없지 않을까 한다. 자기만족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팬분들의 댓글에 하나하나 전부 답장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메시지를 읽고 힘을 얻고 있다.

Q. 감독이 바뀌어도 경기 전 선수들이 파이팅 자세에서 달려나가며 흠어지는 산개 동작은 유지되고 있다. 누구의 의견이었나?

동계 훈련부터 팀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이)명주 형은 전통처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연습 경기 때는 안 했다.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이 파이팅 자세를 취할 때, 팬분들께서 기를 모으는 응원을 한다. 그 응원을 들으면 산개 동작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했다. 계속하다 보니 인천만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명주 형이 하자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셔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Q. 시즌 베스트일레븐 등 개인상 수상에 욕심이 있는가?

지난 시즌에는 개인 목표에 영 플레이어 상 수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개인 목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번 시즌만큼은 더더욱 개인보다 팀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상은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팀이 잘 나가고, 나도 잘하면 상은 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수상에 관한 생각은 딱히 하지 않는다.

Q.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한다.

우선 수원전 때 나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팬분들이 없다면, 우리 선수들도 없고, 나도 없다. 우리 팀도 없을 것이다. 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선수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많이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보답해 드리고 싶다. 올해 반드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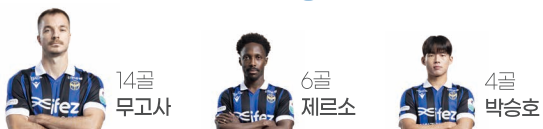
도대체 얼마나 잘했는데? 기록으로 보는 2025시즌 상반기



어느덧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2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승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숨 가쁘게 달려온 인천이 올 시즌 반환점에 도착했다. UTD기자인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이 도대체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5시즌 상반기 결산을 마련했다. 이 글을 보고 선수단의 노력을 한 번 더 알아봐 주길 바란다. 기록은 상반기에 해당하는 6월 29일 18라운드까지 반영했다.



득점왕



상반기 팀 내 최다 득점자는 '파렴의 피니셔' 무고사가 이름을 올렸다. 무고사는 리그 6경기를 제외한 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고, 7골은 페널티 킥으로 만들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5월 13라운드에선 인천 통산 100호 골을 달성했고, 지난달 21일에는 K리그 통산 100호 골 기록도 세웠다.

그 뒤로는 제르소가 6골, 박승호가 4골을 기록 중이다. 5월 들어 득점포를 가동한 제르소는, 5~6월에만 5골을 터트렸다. 박승호도 9라운드 부천FC 원정에서 K리그 역대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을 세웠고, 지난 16라운드 수원 원정에선 멀티골을 기록하며 한 시즌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을 갈아 치웠다.



도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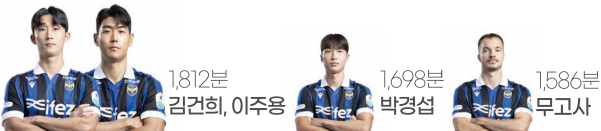


상반기 인천의 도움왕은 제르소가 차지했다. 제르소는 6도움을 기록, 상반기에만 12개 공격포인트를 쌓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제르소는 남다른 속력으로 측면을 무너트린 뒤 문전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건내주며 득점을 도왔다. 위험 지역에서도 스스로 처리하기보단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결해 주는 희생정신도 돋보였다.

4도움을 기록한 바로우가 2위, 3도움을 올린 무고사가 3위에 이름을 올리며 그 뒤를 이었다. 바로우도 제르소와 같은 유형으로, 측면에서 개인 기술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트린 뒤 문전으로 질 좋은 패스를 수차례 연결했다. 도움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로우의 패스가 기점이 되어 득점으로 연결된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다.



체력왕(GK 제외)



상반기 강철 체력을 보여준 선수는 주전 수비수 김건희와 이주용이다. 두 선수 모두 18경기 모두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했다. 출전 시간으로 환산하면 1812분을 뛰었다. 비가 오나 무더위가 찾아와도 피치 위를 굳건히 지켰다. 1689분을 기록해 2위에 이름을 올린 박경섭을 포함한 수비진의 헌신 덕분에 인천은 18경기에서 단 10골만 헌납하는 전설 수비를 보일 수 있었다. 3위는 1586분을 뛴 무고사다.



공중의 지배자



인천의 공중을 가장 열심히 책임진 선수도 김건희가 이름을 올렸다. 최다 출전 시간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김건희는 공중 경합 성공만 93회를 기록했는데 성공률만 80.1%에 이를 정도다. K리그2에도 장신 공격수들이 즐비한 가운데 높은 공중 장악 능력을 보여줬다. 중앙 수비 듀오인 박경섭도 50회를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전방에서 공중 경합을 펼치는 무고사가 29회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슈팅 머신



인천의 최고 슈팅 머신은 팀 내 득점 1위이자 K리그2 득점 1위 무고사가 차지했다. 유효 슈팅만 25회로 팀 내에서 압도적인 횟수를 기록했다. 올 시즌 시도한 64개 슈팅 중 40%에 가까운 유효 슈팅 전환율을 보여주며, 여기서 무고사의 최다 득점의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뒤로는 박승호와 제르소가 12회로 2위를 달렸고, 3위는 6회를 기록한 이동률이 이름을 올렸다. 이동률은 9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출전 경기 수가 적다. 리그 8경기에 나섰고 선발로는 2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3골을 터트리는 등 순도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며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드리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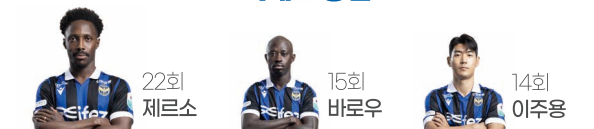


상반기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뽐낸 선수는 제르소다. 측면에서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는 상대로만나는 수비수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제르소가 1위를 차지한 건 많은 이들이 예측할 수 있지만 2위에 김건희가 이름을 올린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경기 중 김건희가 측면 높은 위치까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은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춰 인천을 상대하는 팀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유정환 감독의 전략이다. 김건희의 측면 돌파를 통해 수적 우위를 챙겨 상대 밀집 수비를 깨트렸다. 김건희도 "중앙보단 측면을 활용한 공격



키패스 장인



상대의 두터운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트리는 데 일가견을 보인 선수는 제르소다. 공격 지표에서 제르소는 도움, 드리블에 이어 3관왕을 차지했다. 그만큼 공격 실마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빠른 속력과 개인 기술로 상대 수비수가 집중적으로 견제하는데, 이 틈을 타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었다.

2위에는 또 다른 측면 공격수 바로우가 15회를 기록해 이름을 올렸고, 이주용이 14회로 3위를 차지했다. 이주용은 공격 상황에서 김건희-박경섭과 함께 3백을 구축하지만,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키패스를 많이 시도했다. 팀의 코너킥을 담당할 정도로 날카로운 왼발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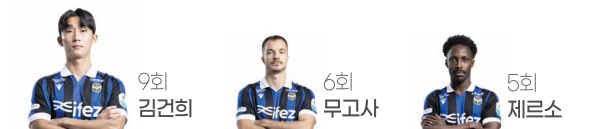
태로왕



공격 지표 3관왕을 차지한 제르소가 대표적인 수비 지표 중 하나인 태클 성공 수도 팀 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이나 전방 압박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2위는 주장이자 중원 살림꾼 역할을 맡고 있는 이명주가 차지했고, 3위는 김건희와 이주용이 13회를 기록해 이름을 올렸다.



리그 Best 11 최다 선정



올 시즌 팀 내에서 K리그2 라운드 베스트 11에 가장 많이 선정된 선수는 김건희다. 김건희는 18경기 중 절반인 9번이나 선정됐다. 5월에 치른 모든 리그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 올 시즌 김건희는 클리어링 1위(114회), 차단 2위(41회), 볼 획득 2위(131회), 블락 3위(23회)로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2위는 6회 선정된 무고사, 3위는 5회 뽑힌 제르소가 차지했다.

글 = 손지호 UTD기자 (sonjiho50@gmail.com)



새로운 인천의 아들 강민성, 항상 내게 최우선인 팀, 인천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어릴 적부터 오로지 인천유나이티드를 바라보며 뛰었던 선수가 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벽을 넘고 마침내 꿈을 이뤄 마침내 인천축구 전용경기장 그라운드 위에 섰다. 2025시즌을 앞두고 팀에 입단한 유스 출신 공격수 강민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UTD기자는 인천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루키 강민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천을 가슴에 새기고 꿈을 키웠던 '유망주' 강민성

Q. 어린 시절부터 인천에 큰 애정이 있었다고 밝힌 적이 많았다. 인천과 처음 인연을 맺을 때는 언제였는가?

7살 때 동네에서 취미로 축구를 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동네에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축구 선수를 꿈꿔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부모님께 하셨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더 전문적으로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인천유나이티드 아카데미를 알아보셨다. 이때를 계기로 7살 때 처음으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Q. 어린 시절부터 인천을 응원했으니 직관 경험도 많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경기나 장면이 있는가?

너무 어릴 때라서 경기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코치로 계시는 정혁 선생님이나 작년까지 계셨던 김이섭 코치님, 그리고 임종용 이사님이 당시 선수였던 점이 생각난다. 경기가 끝나면 기다리고, 유니폼에 사인을 받던 순간이 선명하다.

Q. 시간이 지나서 인천대건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인천에 소속되었다. 대건고 시절은 본인에게 어떤 기억인가?

1학년 때는 저학년이지만 경기를 많이 뛰었다. 좋은 형들과 친구들 덕분에 행복하게 축구를 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는 힘든 시기도 겪어서 행복함과 동시에 인생을 많이 배운 시기라고 생각한다. 2학년으로 올라가던 당시인 2020년 1월에 발목을 다쳐서 수술을 받고, 8월에 복귀했다. 사실 내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데도 무리해서 대회에 나섰다. 그 여파로 다시 부상이 찾아오면서 2학년 시기가 끝났다. 3학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재활에 매진해서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부상이 십자인대 파열이 찾아왔다. 그때는 축구를 그만 해야 하나 싶었다.

Q. 정말 힘든 시기였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었는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 인스타그램 피드에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인천 경기장의 플래카드 사진을 같이 올렸다.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는 '새벽' 가사의 일부분이었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내일이 더 길 테니'라는 글귀를 보면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 다시 인천 엠블럼을 달고 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유니폼을 입고 뛸 시간이 적어서 아쉬움이 많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Q. 인천대 진학 후 점차 활약이 좋아졌고, 특히 3학년 때는 U리그 득점 왕도 경험했다. 프로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는가?

2학년 때부터 경기를 본격적으로 뛰었다. 2학년 여름 때부터 K리그 2 팀들이 나를 주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내 꿈은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만을 생각했다. 3학년 때는 우선지명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라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하루에 운동만 3~4번 했고, 방에 '무조건 인천유나이티드에 가겠다'라고 써 붙였다.



마침내 이뤄진 인천 입단, 꿈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

Q.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합류했다. 입단 당시 기분은?

2024년 12월에 바로 올라오지 못해서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래도 인천을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믿으면서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2월 3일, 4일쯤에 인천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 들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했다. 잊지 못할 순간이다.

Q. 인천 팀 동료 중에 원래 알고 지내던 선수도 꽤 있을 것 같다. 입단 소식이 전해진 후 잘 챙겨준 선수는 누구였는가?

계약서를 쓴 날에 인천은 남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에 연락한 사람은 후배 (김)세훈이었다. 월 챙겨가야 할지 물어볼 겸 연락했는데, 세훈이를 통해서 (박)경섭이한테도 연락이 왔고 (박)승호도 연락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승호가 마중 나와서 가방도 같이 들어주고, 반겨줬다.

Q. 남들보다 늦게 합류한 편이다. 당시 훈련 분위기는 어땠는가?

팀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처음 합류해서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전에도 종종 뵈긴 했지만 (신)진호 형, (이)명주 형 등 K리그의 레전드인 분들과 같은 팀이 됐다는 점이 신기했다. 내 오피셜이 뒀을 때 문구가 '인천대 무고사'였는데, 처음 훈련할 때 무고사 형이 그걸 보고 "이거 뭐냐, 내 이름이 왜 있냐" 했던 기억도 난다.



기쁨과 충격이 공존했던 강민성의 데뷔전

Q. 시즌 시작 후 인천이 코리아컵에서 많은 선수에게 기회를 줬고, 데뷔 기회가 빠르게 찾아왔다. 명단에 들었을 당시 기분은 어땠는가?

코리아컵 경기 전에 훈련할 때부터 감독님께서 리그 경기를 안 뛸 선수 중심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명단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명단에 든 후로는 실제로 뛰게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없으니 준비하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자는 마음이 컸다.

Q. 춘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후반에 투입됐는데, 짧은 시간 속에서 좋은 장면도 있었지만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데뷔전을 돌아보면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는가?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다. 경기장에 들어간 후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퇴장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기분도 들었다. 그래도 이를 통해 배움을 얻었고, 다음에 출전 기회를 얻으면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남지만 개막 후 1달 만에 데뷔를 해서 감사했고, 행복했다.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다.

Q. 경기 후 팀 동료나 지도자분들의 조언은 특별히 있었는가?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형들이 경기 끝난 후에 연락을 많이 주셨다. 다들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들도 위로해 주셨고, 다음 경기를 못 뛰게 된 점이 제일 아쉬웠는데 감독님이 기회를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 뒤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셨다. 아직 경기를 거의 못 뛰는 상황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주변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내 몫이다. 언젠가 올 그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뛰는 중이다.



팬분들께 받은 기쁨을 2배로 돌려주고 싶은 강민성의 진심

Q. 어떤 유형의 공격수라고 생각하는가?

무고사 형과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자신 있는 점이 득점력이고, 내려와서 연결해 주는 패스로 즐긴다. 다만 무고사 형처럼 되려면 득점력도 키우고, 제공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공격수 동료들이 많은데, 함께 하면서 배우는 점은 무엇인가?

무고사 형의 득점력은 K리그 최고 수준이라서 훈련 때 최대한 따라하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친구인 승호도 정말 에너지 넘치게 뛰는 모습에서 많이 배운다.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자극도 준다.

Q. '인천대 무고사'를 넘어서 인천에서도 득점을 터뜨리는 상상을 종종 할 것 같다. 하고 싶은 세레머니가 있는가?

항상 운동할 때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힘을 때를 이겨내고 있다. 인천 S석 앞에서 골을 넣으면, 바로 좌석으로 올라가서 팬들과 함께 기쁨을 즐기는 세레머니를 하겠다.

Q. 프로 선수로는 아직 출발점에 있다. 올 시즌에는 어떤 목표가 있고, 향후 어떤 선수로 거듭나고 싶은가?

이번 시즌에는 우선 K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내 가능성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다. 그리고 팀이 승격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 힘들게 이 팀에 왔는데, 그래서 꼭 이 팀에서 성공하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항상 내게는 인천이 최우선이고, (김)도혁이 형처럼 인천의 레전드가 되는 것이 내 꿈이다.

Q.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축구를 시작하고, 대건고를 거치면서 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컸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체전 결승전에 오셨던 팬분들의 응원, 그리고 십자인대 부상 당시 주셨던 메시지가 모두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선수인데도 유소년 출신이니 똑같은 인천 선수로 응원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가끔 경기장에서 내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들도 봤는데 정말 감사하다. 모든 팬분에게 내가 받았던 기쁨의 2배 이상을 경기장에서 활약으로 갚고 싶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파검빛 꿈을
후원하는 사람들, **서쪽사람들**

커다란 날개를 펴고, 희망에 더 가까이

2025년 2월 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의 후원회 [서쪽사람들]이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하였다. 인천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후원회는 팬들의 응원을 모아 강등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말, 인천유나이티드의 강등이 확정되고 모두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렇게 [서쪽사람들]은 시작되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후원회를 만들어 인천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자 한 것이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준비위원 모두가 각자의 생업을 지닌 생활인으로서 시간도 재정도 여유롭지 않음은 물론 팀은 강등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어 후원회의 추진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인천팬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팬들은 후원회의 탄생을 한마음으로 응원하였고, 그 결과 서쪽사람들의 창립총회가 순조로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서쪽사람들은 팀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팬들의 염원을 모아, 인천유나이티드의 1부 복귀와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후원회원을 모으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와 홍보물품의 개발, 각종 매체를 통한 후원업체 홍보활동 등이 그것이다.

후원회는 팬들의 땀방울이 모인 후원금이 인천유나이티드의 발전에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후원회가 되고자 한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서 거듭남은 물론 더 강력한 게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후원회의 홈페이지는 3월 중 오픈 예정이며, 현재는 카카오톡 채널(@서쪽사람들) 및 인스타그램(@incheonutd_west)을 통해 후원회 가입이 가능하다. 후원금액에 따라 블루(월 1만원), 블랙(월 10만원), 골드(월 100만원)의 3가지 등급이 부여되며 각각의 등급에 따른 혜택 또한 준비되어 있다. 후원회는 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더 다양한 후원방법과 채널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게 내딛는 첫 걸음



▲ 지난 2월 8일, 인천UTD 후원회 '서쪽사람들' 창립 총회
(사진/디자인 제공: 서쪽사람들 미디어팀 / 박은서, 소원 / 디자인팀: 나경민, 김태원)

창립을 맞은 [서쪽사람들] 설립준비위원회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윤준구(후원회장) : 서쪽사람들의 창립은 인천유나이티드와 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원회는 지역사회와 인천팬 그리고 팀을 하나로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인천유나이티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범 : 20여년전 내고향 인천에 “인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축구단이 생겼다는 일은 너무나도 생경한 일이고 20여년의 시간동안 2번의 준우승 그리고 “생존왕”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참가, 그리고 “강등”이라는 참담한 결과까지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문 : 인천유나이티드 창단전에는 팀이 없어 서글픈 마음에 창단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세월도 많이 흘렀고 팀에 어찌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던 참에 후원회를 만들어보자 하여 이렇게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인천을 창단하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손길들이 모여 구단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과정이 힘들고 험난했으나 인천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움직여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서쪽사람들”이라는 후원회로 인하여 우리팀이 더욱 발전하여 아시아의 NO.1 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영철 : 서쪽사람들은 인천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인천유나이티드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전환점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명 한명의 팬들의 힘을 모아 구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 강등의 시련 앞에 슬퍼하기보다 사랑하는 팀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음의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우리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고 더 많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힘이 모여 더 강한 인천유나이티드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재용 : 내 고향팀 인천이 2부리그로 강등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후원회의 창립으로 인천이 1부리그로 복귀하는데 팬으로서 힘을 보탬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감개무량 합니다. 후원회가 더욱 성장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 힘을 모아 1부리그 승격과 이젠, 우승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쪽사람들
문의

TALK 카카오톡 채널(@서쪽사람들)

인스타그램(@incheonutd_wes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IUFC
BLUE MARKET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온라인 블루마켓 WWW.INCHEONUTDMARKET.COM